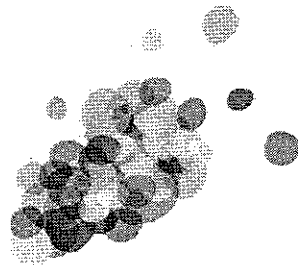


제10회 이사회 의사록

2010년 12월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제10회 이사회 의사록

1. 일 시 : 2010. 12. 22(수), 07:30~09:30

2. 장 소 : 조선포텔 2층 튜립룸

3. 참 석 자 : 총 10인

(상임이사 3인, 비상임 이사 6인, 비상임 감사 1인)

- 이 사 : 이재응 의장, 최영호 이사, 정동천 이사, 김종율 이사,
유해영 이사, 권택민 이사, 김승수 이사, 김재하 이사
김 행 이사
- 감 사 : 이문진 감사
- 간 사 : 이인숙(콘텐츠진흥원 경영기획팀장)

4. 개 회

- 이재응 의장이 인사말씀을 하다.
- 간사인 이인숙 경영기획팀장이 성원보고를 하다.
(이사 및 감사 10명이 참가하다.)
-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개회시간 07시 30분)

의결안건 제1호 : 직제규정 개정(안)

- 의장이 제1호 의결안건을 상정하다.
- 의장이 간사에게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제1호 안건인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 설명하다.
- 의장이 간사의 보고를 받은 후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김종율 이사가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증원에 대하여 기재부와 협의 했는지 질의하다.
- 간사가 기재부와 협의 완료하였다고 답하다.
- 김재하 이사가 문화기술분부가 CT개발지원단으로 바뀌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의장이 근본적인 이유는 PD 기능을 문화부에서 관장하고, 진흥원에서는 과제기획을 담당하여 결정된 과제에 대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다.
- 유해영 이사가 조직도에서 부원장과 부문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부원장의 포지셔닝이 맞지 않아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하다.
- 의장이 직제는 부원장, 본부장으로 되어 있고, 상임이사가 두 분이어서 여러 가지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다.
- 권택민 이사가 직급과 직책을 동일 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내용상 이상하지 않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 유해영 이사가 두 분 상임 이사 간에 연봉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

하다.

- 의장이 유해영 이사 말씀대로 두 분을 부문장으로 하는 것도 좋으나, 부원장을 없애는 것도 어려운 문제라고 의견을 개진하다.
- 김종을 이사가 명칭 변경은 원장께 일임하고 향후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 의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다.
- 의장이 원안대로 가결하되 이사들의 의견대로 명칭 변경은 원장에게 일임하고 추후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의결안건 제2호 : 인사규정 개정(안)

- 의장이 제2호 의결안건을 상정하다.
- 의장이 간사에게 안전에 대한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제2호 안건인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 설명하다.
- 의장이 간사의 보고를 받은 후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권택민 이사가 감사원 감사 결과도 해당 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유해영 이사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감사기관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 정동천 이사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고, 감사기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빼기로 했다고 답변하다.
- 권택민 이사가 이 조항은 비위자가 의원면직을 하고 퇴직금을

- 받았을 때 환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는 조항으로 알고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 간사가 직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내부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다.
 - 권택민 이사가 외부의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하다.
 - 정동천 이사가 권익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어 진행하는 것이고 문구도 지침상에 명시되어 있다고 답변하다.
 - 김종을 이사가 직원이 사표를 제출하면 원장은 의무적으로 수리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김재하 이사가 노동법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수리해 줘야 한다고 답변하다.
 - 김종을 이사가 다른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하다.
 - 의장이 추가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의결안건 제3호 : 보수규정 개정(안)

- 의장이 제3호 의결안건을 상정하다.
- 의장이 간사에게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제3호 안건인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 설명하다.
- 의장이 간사의 보고를 받은 후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정동천 이사가 기재부 지침에 따른 변경안임을 설명하다.
- 유해영 이사가 업무평가의 의해 능력대로 지급하는 것인지를 질의하다.
- 권택민 이사가 경기디지털진흥원은 초과근무는 자율적으로 줄어들게 조치했다고 설명하고 기타 수당에 성과연봉은 해당이 되는지를 질의하다.
- 간사가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고 기타수당은 시간외수당 같은 법정 수당이라고 답변하다.
- 유해영 이사가 경영본부장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것 같고, 조직개편에 따라 경영평가 업무도 담당하게 되어 책임이 막중해지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필요하면조세연구원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하다.
- 의장이 좋은 의견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다.
- 의장이 추가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의결안건 제4호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년 사업계획(안)

- 의장이 제4호 의결안건을 상정하다.
- 의장이 간사에게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제4호 안건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간략 설명하다.
- 의장이 간사의 보고를 받은 후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김종율 이사가 이사님들의 사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하다.
- 의장이 좋은 사업 제안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과 연계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유해영 이사가 CT R&D 지원에서 기 개발된 콘텐츠 관련 기술들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사장된 기술을 활용 기술로 전환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 김종율 이사가 유해영 이사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기획과 관리/평가 부분을 완전히 개선하는 과정에 있고 기획 단계부터 업체를 참여시켜 과제를 발굴하는 등 시스템을 준비중이라고 의견을 개진하다.
- 유해영 이사가 콘텐츠 생태계 조사 및 사례를 만들어서 외부인에게 콘텐츠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예로 캐릭터의 파급력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캐릭터산업의 생태계를 파악하는 것도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 의장이 캐릭터나 콘텐츠 부분에 대한 것은 산업정책실에서 분석하고 효과까지 파악해 나갈 것이고 콘텐츠 업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하다. 또한 CT 분야에서 해외 선진사례의 특허를 분석해서 우리도 개발해야 하고, 색채와 감성 그리고 멜로디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권택민 이사가 지역진흥원 입장에서 두 가지 제안을 하다.

첫 번째는 지역 사업설명회 개최와 관련 콘진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지역진흥원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계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지역진흥원의 경우 예산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콘진원과 같이 연계를 하면 사업 예산 확보에 많은 힘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다.

- 의장이 콘진원에서 지역진흥원의 이슈와 사업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역진흥원에서 연계할 만한 사업들을 부원장님께 전해 주시면 검토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다.
- 김종율 이사가 현재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 내년 예산에도 협의체를 통해서 연계 할 수 있는 사업을 확인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하다.
- 김승수 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가 연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것인지를 질의하다.
- 최영호 이사가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고 답변하다.
- 김종율 이사가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되고 재판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꼭 연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다.
- 김승수 이사가 일산에 만들고 있는 드라마 제작스튜디오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 지를 질의하다.
- 최영호 이사가 내년 초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다.
- 김승수 이사가 드라마 스쿨 예산이 살아 있는지와 콘텐츠 아카

- 데미가 언제부터 가동되는지를 질의하다.
- 최영호 이사가 드라마 스쿨예산은 포함되어 있고 콘텐츠 아카데미는 3월부터 목동에서 진행한다고 답변하다.
 - 의장이 추가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의결안건 제5호 : 2011년 방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 의장이 제5호 의결안건을 상정하다.
- 의장이 간사에게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제5호 안건인 2011년 방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 설명하다.
- 의장이 간사의 보고를 받은 후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김종율 이사가 금년과 내년에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 지를 질의하다.
- 최영호 이사가 CG와 3D 기술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고, 신용 융자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답변하다.
- 김종율 이사가 융자지원인데 왜 진흥원에서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지를 질의하다. 영세 제작사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의 자금만 남기고 모두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하다.
- 최영호 이사가 방송진흥기금은 2년간 융자해 주는 것으로서 회수가 되는 자금을 대해 년도별 사업예산을 기획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최소의 자금만 남기고 융자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정동천 이사가 본 사업의 애로사항이 담보가 있어야 용자가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신용 용자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변하다.
- 의장이 추가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5. 폐 회

- 의장은 이상으로써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음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09시 20분)

상기 의사록을 확인함

2010년 12월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의 장 이재 응

(인)

상임이사 최 영 호

(인)

상임이사

정 동 천

(인)

이 사 김 종 율

(인)

이 사

유 혜 영

(인)

이 사 김 승 수

(인)

이 사

권 택 민

(인)

이 사 김 재 하

(인)

이 사

김 행

(인)